

고전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국 시문학 교육의 변화 모색

— 시가문학의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곁하여

최 석 원*

<목 차>

1. 고전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국 고전 교육 변화의 필요성
2. 문화콘텐츠로서의 탈바꿈 - 고전 시가 문학 교육의 새로운 방법
 - 2.1 스토리보드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 2.2 마인드맵을 통한 이미지의 의미망 구축
3. 한계와 극복
4. 결론

1. 고전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국 고전 교육 변화의 필요성

미국 CIA에서 발간하는 The World Factbook의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2.1%에 해당된다.¹⁾ 이 가운데에는 이주노동자, 국제 결혼자, 귀화자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실질적인 문맹률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2013년 진행된 OECD 국제 성인역량 조사에서는 이른바 “일상 활동, 가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seokwon1@hanmail.net)

1) 해당 통계는 2012년에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CIA The World Factbook Country Comparison :: Literacy". Central Intelligence Agency. (<https://web.archive.org/web/20160730000952/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103rank.html>)

정, 일터 및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잠재력을 넓힐 수 있는 능력²⁾을 가리키는 문해력(Literacy) 영역에서 대한민국은 23개의 조사국의 평균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³⁾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단지 글을 해독하는 능력에서 벗어나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함양이 필요한 지금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 강구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조희정은 고전 교육을 통한 리터러시 함양 능력의 제고를 제안한 바 있다. 즉 고전 교육은 단순한 문자 해독 능력 함양의 관점에서 벗어나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사실 이러한 고전 리터러시의 강조는 현재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쉬이 찾아볼 수 있다. 먼저 2015년 개정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육과정의 성격을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⁵⁾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고전을 주 학습내용으로 삼는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산출과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활용의 능력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⁶⁾ 뿐만 아니라 문학 교과목 역시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창의적·심미적·성찰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⁷⁾ 배양을 학습의 주요 목표로 설

2) 변종임 외,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사업: 한국 성인 文解교육의 발전과정과 성과> (주관: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수행: 한국교육개발원, 2012,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205-01), 74쪽.

3) <OECD Skills Outlook 2013-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글번역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46쪽.

4) 조희정, <고전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구도>, 《국어교육학연구》(제21집, 2004).

5) 교육부, <2015년 초·중등학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년 9월), 6쪽.

6) “창의적 사고 능력은 한자와 한문 자료에 담겨 있는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지식과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육부, <2015년 초·중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7], 2015년 9월), 10쪽.

7) 교육부, <2015년 초·중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정하고 있으며, 고교 선택과목인 <고전 읽기> 교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⁸⁾ 앞서 열거한 초중등학교의 교과과정의 목표 설정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명시한 교육과정 총론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적 관점에 입각해 창조적이며 비판적으로 고전을 수용하여 재생산해내는 능력을 일컫는 고전 리터러시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대학 교육 내에서 고전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과목 설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물론 현재까지 대학교육의 방향 설정과 교과목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가 존재하는 않는 상황에서 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⁹⁾ 다만, 고전 교육과 관련하여 필자는 전국 4년제 대학 중어중문학과 혹은 이와 관련된 학과 내 고전문학 중 시가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하면 소수의 학과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중국명시감상> 혹은 <중국시가강독>과 같은 텍스트 중심의 교과목이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⁰⁾ 물론 해당 통계는 개설된 교과목명만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실제 운영 상황과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목명

2015년 9월), 123쪽.

- 8)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전읽기>는 '국어과' 교과목 중 '[선택 중심 교육과정]-진로 선택'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개정된 교육과정에는 아래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2015년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5], 2015년 9월), 167쪽.

가. 고전의 가치와 고전을 통한 국어 능력 심화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나. 고전을 제재로 하여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하고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적 소통 능력을 기른다.

다. 고전과의 소통을 생활화하여 수준 높고 윤리적인 국어생활을 영위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상 각 교과목 교육과정 교육목표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한 것임.

(<http://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9) 현재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index.do>)'에서는 학생, 교원·연구, 교육여건, 대학운영, 산학협력, 예·결산의 6가지 항목에 대한 전국 각 대학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10) 2018년 기준으로 전국 4년제 중어중문학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가운데 총 53개교에 고전 시가 문학 관련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중 교과목 자체에 중국 고전시문학 교육의 목적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는 <중국인의 시와 노래>, <한시문화>, <당시와 여성>, <중국시사감상과 한시외교>, <중국시낭송>, <명시로 읽는 중국사회> 등의 교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은 강독, 이해, 감상 등의 교과목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 구성이 학과의 교육방향과 목적 설정에 기초하여 설계된 것이며, 실제 수업 운영에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의 교과목 설계는 학습자 중심 그리고 학습자의 자발성과 창의력 신장 함양에 중심축을 두고 있는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그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림 1.
(<https://www.rosettakorea.com>)

급한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요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수업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교육방법 및 성과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필요치 않아 보인다. 다만 서경숙이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교과 운영은 상호작용(interactive) 활동을 전개할 수 있기에 학습자 중심 그리고 학습자 창의성 함양이라는 교육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줄 것이라 판단된다.¹²⁾ 본고의 논의는 중국 고전 교육의

주지하듯이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다양한 교육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그 중 로제타스톤(Rosetta Stone)은 학습자와의 쌍방향 교육을 시도함으로써 외국어 교육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¹¹⁾ 이렇듯 현대 사회가 갖추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앞서 언

11) 허철은 학습자의 학습 성취를 중시한 제2외국어 교육용SW로 로제타스톤을 꼽으면서, 이는 해당 외국어 화자와의 기본적 소통 능력 신장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허철, <自學用 한문교육SW 개선 방안 연구>(《한자한문교육》 제43집, 2017), 226쪽.

12) 서경숙은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사용의 대학교 수업환경에 주는 장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디지털 인문학 교수법의 이론 및 실제-영미문학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38집, 2015)

ㄱ.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 표현수단인 시각이미지의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언어의 4가지 기술을 발달시킨다.

영역 내에서 고전 리터러시, 즉 고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현재적 관점으로 재맥락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교과목 구성의 한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일찍이 국내의 모 항공사는 중국 西安과 鄭州 직항 노선의 취항과 함께 시리즈물 광고를 선보인바 있다. 총 6편으로 구성된 해당 광고는 중국의 고전을 활용한 대표적인 스토리텔링형 광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일련의 현대와 고전의 만남은 고전이 문화콘텐츠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본고는 미디어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하여 중국 시문학 작품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생산해냄으로써 ‘살아있는’ 텍스트로서 중국 시가 문학이 인식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화콘텐츠로서의 탈바꿈 - 고전 시가 문학 교육의 새로운 방법

다음에 제시하는 그림들은 각각 ‘금연’, ‘효’와 관련된 공익 광고의 한 장면으로, 모두 한자가 지니고 있는 문자적 특징과 현대의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결합함으로써 분명하고도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¹³⁾ 일찍이 박영희는

-
- ㄴ.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시각교육은 구두로 전달되는 전통적인 교수법에 비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 ㄷ.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한 교육은 인터랙티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교수자와 학생들 간의 실시간 의사소통을 도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ㄹ.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은 학생 상호간 협동 작업과 협력 수업을 위한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 ㅁ.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발표하는 과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표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ㅂ. 디지털 기술과 기기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정보를 선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2.1 스토리보드를 활용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은 《조선왕조실록》의 한 줄 기록에서부터 출발하여 한류의 중심이 되었다. 2012년 개봉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역시 팩션(faction), 즉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이 더해져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렇듯 사실에 기반하여 말하는 주체의 상상력과 감정이 덧입혀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¹⁵⁾ 스토리텔링은 비단 영상 제작의 영역에서만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 게임 산업 등 산업의 각 영역에서 이미 주목한 바 있고, 교육의 영역에서도 스토리텔링은 어느새 중요한 교육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09년 개봉된 허진호 감독의 <호우시절>은 힘겨운 생애를 버텨야만 했던 杜甫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四川省 成都를 공간배경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 당시 杜甫가 마주했던 때에 맞추어 내리던 비는 <호우시절>이라는 영화의 제목이자 四川 지진의 피해로 힘들어 하던 여주인공이 위안과 희망을 갖게 되는 사랑 이야기의 복선으로 작동한다. 물론 杜甫의 <春夜喜雨>에 대한 전통적 해석 가운데에는 詩敎의 관점에 입각해 이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¹⁶⁾ 허진호 감독은 이를 사천대지진과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이어놓으며 <春夜喜雨>를 다시 그려내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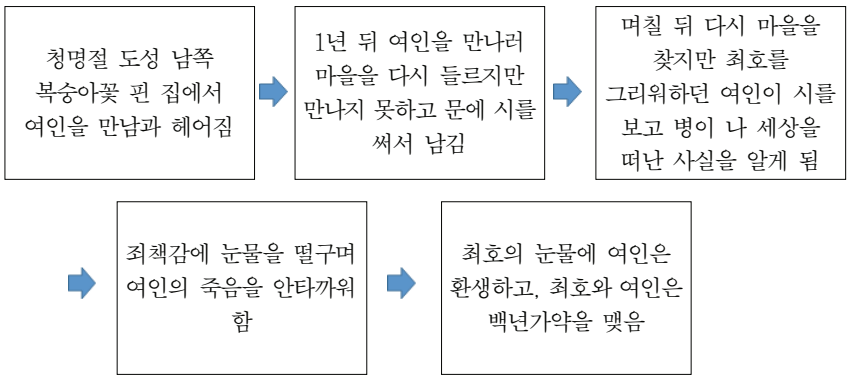
이처럼 고전이 자신의 경험과 상상력을 덧대어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의 방

15) 김희경은 스토리텔링을 어떤 이야기(story)를 지니고 있는 화자(teller)가 음성과 소품을 활용하여 청자에게 들려주는 방식이라는 설명에 동의하면서,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의 방식과 기법이 중요하며 상대방에게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전달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은 대중음악이나 오페라 같은 노래나 문학과 같은 글쓰기, 연극이나 영화와 같은 연기와 영상을 통한 보여주기의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박치완 외, 《지식의 역사와 그 지형도》(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6), 378쪽.

16) 劉宸翁은 이에 대해 일찍이 “시평에 뛰어난 자가 이를 신하의 임무라고 여겼으며, 또한 그 말이 지극한 데에 맛이 있다고 하였다. 순서대로 펼쳐 드러내었으니, ‘비와 이슬이 적서, 단 것과 쓴 것 모두 열매를 맺었네’(<北征>)라고 한 두 구와 같다. 진실로 덕이 있는 자의 기상이다.(有善詩評者, 以此爲相業, 亦有味乎其言之至也. 造次數露, 與雨露之所濡, 甘苦齊結實. 兩句同, 真有德者氣象.)”라고 하였다. 蕭滌非, 《杜甫全集校注》(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3), 2126쪽.

범으로 활용되는 예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孟槩의 《本事詩》에 수록된 崔護의 <題都城南莊>에 대한 일화는 고전 시가 스토리텔링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崔護의 <題都城南莊>은 비교적 짧은 7언 절구로, 작년 청명절 복사꽃과 함께 본 여인이 지금 보이지 않음을 슬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孟槩는 이를 바탕으로 복숭아꽃 핀 도성 남쪽 마을 여인과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로 재탄생시켜 놓고 있다.¹⁷⁾ 아래는 孟槩의 《本事詩》의 내용을 간략화한 것이다.¹⁸⁾

[표-1]



17) 莫礪鋒은 <題都城南莊>과 관련된 일화는 孟槩에 의해 덧붙여진 이야기일 것이라 추측하면서, 이 일화는 이후 명대의 <桃花人面>, 청대의 <人面桃花>라는 제목의 공연으로 제작된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莫礪鋒, 최석원 역의 《당시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6) 154쪽.

18) 孟槩 《本事詩·情感第一》: “後數日, 偶至都城南, 復往尋之, 聞其中有哭聲, 扣門問之, 有老父出曰, 君非崔護邪, 曰, 是也. 又哭曰, 君殺吾女. 護驚起, 莫知所答. 老父曰, 吾女甫笄知書, 未適人, 自去年以來, 常恍惚若有所失. 比日與之出, 及歸, 見左扉有字, 讀之, 入門而病, 遂絕食數日死, 吾老矣, 一女, 所以不嫁者, 將求君子, 以託吾身, 今不幸而殞, 得非君殺之耶. 又持大哭, 崔亦感慟, 請入哭之, 尚儼然在牀, 崔舉其首枕其股, 哭而祝曰, 某在斯, 某在斯, 須臾開目, 半日復活矣, 父大喜, 遂以女歸之.(그 뒤 며칠이 지나, 우연히 도성 남쪽에 이르러, 다시 찾아가 그녀를 찾는데, 그 집 안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문을 두드려 물었더니, 노인이 나와 말할길 ‘그대가 최호 아닌가?’라 하였다. 이에 ‘그렇습니다.’라고 하자, 다시 곡하며 ‘그대가 내 딸을 죽였네.’라고 하였다. 최호는 놀라 어찌 대답할지 몰랐다. 노인이 말할길 ‘내 여식은 성년으로 글을 읽을 줄 알았는데, 인연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네, 작년부터 잃어버린 양 명하니 있었는데, 전에 함께 집을 나갔다고 돌아오니 왼쪽 문에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는 읽고서 집으로 들어가서는 병이 났다네, 이내 며칠 동안 끼니를 끊고

물론 孟檠의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도 존재하겠으나, 7언 절구의 짙막한 시를 절절한 러브스토리로 탈바꿈시켜 놓음으로써 崔護의 <題都城南莊>은 완전한 의미 맥락을 갖게 된다. 이렇듯 편곡과 운율 등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함축성을 내재하고 있는 중국 고전 시가 작품들은 이야기의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열린 텍스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고전 시가 문학에 내재된 이러한 특징은 스토리텔링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시문학 교육의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먼저, 앞서 인용한 바 있는 崔護의 <題都城南莊>과 같이 특정 작품의 전후를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해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杜甫의 ‘三吏三別’이나 <兵車行>과 같은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들의 경우 각 작품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학습자의 상상력을 보태어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만들도록 하면 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도의 제고는 물론이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漢代 악부민간 중 하나인 <陌上桑>이나 <孔雀東南飛>와 같은 경우 스토리텔링을 활용한다면, 작품의 내용 이해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신본질서와 봉건예교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 당시와는 다른 현대 사회 속 차별과 불평등 등에 대한 현재화된 <陌上桑>과 <孔雀東南飛>의 내용을 만들어 봄으로써 시가 지닌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¹⁹⁾

주지하듯이 춘추전국 시대 이후 ‘斷章取義’의 문화에 기댄 賦詩의 전통은 지금까지 유효하다. 얼마 전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 양국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는데, 2017년 한국과 중국의 정상 회담에서 중국 총

죽어 버렸네. 나는 늙은 몸으로 딸자식 하나뿐인데, 시집을 보내지 않은 것은 좋은 난궁을 구해 내 몸을 의탁하고자 함이었네. 지금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으니, 그대가 내 딸을 죽인 것이 아니겠나!’라고 하며, 또 다시 최호를 붙잡고 대성통곡하였다. 최호 역시 슬퍼, 집으로 들어가 곡하기를 청하니, 여전히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최호는 그녀의 머리를 들어 자신의 다리로 베개를 삼아주었다. 울며 축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네, 내가 여기에 있어.’라고 하자, 잠시 뒤 그녀는 눈을 뜨고 만나질 만에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여, 곧 딸을 최호에게 시집보내었다.”

19) <孔雀東南飛>는 2009년 王文杰 연출의 드라마로 제작되어 중국에서 방영된 바 있다.

리가 宋代 문인 蘇軾의 <題惠崇春江曉景> 중 한 구절을 읊어 양국 관계가 곧 정상궤도에 오를 것임을 밝힌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고 하겠다.²⁰⁾ 이러한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전통에 기댄다면, 역시 고전을 활용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 중 하나로 광고나 표어의 제작을 꼽을 수 있겠다. 일찍이 김의정은 근대 이전 시는 음악적 효과에 의해 예술미가 발휘되었으나 근대 이후 시의 음악성은 탈각되고 시각성이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시가 광고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²¹⁾ 필자의 경우 비록 시가 문학에 한정하지는 않았으나, 고전을 활용하여 상업 광고 혹은 공익 광고의 시놉시스(synopsis)를 구성하는 과제를 제출토록 한 바 있는데, 아래의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2]

| 인용구 | 주제 | 인용구 | 주제 |
|-------------------------------|-------------------|--------------------|--|
| 身後有餘忘縮手, 眼前無路想回頭 | 물 절약 | 魯迅의 <故鄉> | 급격한 발전 속에 존재하는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혐오-내가 바라는 고향의 모습 |
| 其實地上本沒有路, 走的人多了, 也便成了路. | 여행사 광고 | 項莊舞劍 意在沛公 | 인간의 이기심 |
| 美中不足, 好事多魔 | 순간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 것을 | 有緣千里相會, 無緣對面不相逢 | 결혼중개업체 광고 |

2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1471271>

21) 김의정, <시는 어떻게 광고가 되는가 - 중국 고전시의 문학 콘텐츠 활용방안> (《중국어문학지》 제42집), 2013.

최진아는 <동양 고전의 현대적 이해>라는 수업을 통해 고전을 활용한 광고 카피를 학습자들에게 제출토록 한 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과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최진아, <고전은 고정된 것인가? - 디지털 시대의 중국 고전 교육을 위한 試論> (《중국어문학지》 제47집), 290쪽.

ㄱ. 팔월 호수는 잔잔한데 하늘 내려와 물 속에 잠겨(八月湖水平, 涵虛混太清): 孟浩然的 <洞庭湖>를 활용한 정수기 광고

ㄴ. 하늘을 나는 듯 삼천 척 내리꽃아 흐르네(飛流直下三千尺): 李白的 <望廬山瀑布>를 활용한 전립선 치료제 광고

| | | | |
|----------------|--------------|------------------|--------|
| | 충고하는 공익광고 | | |
| 尊敬師父 | 교권 존중 | 世有伯樂 然後 有千里馬 | 학원 광고 |
| 非不能也, 是不爲也. | 환경 보호 | 粒粒皆辛苦 & 出沒風波裏 | 지퍼백 광고 |

李紳의 <憫農> 가운데 “粒粒皆辛苦” 구와 宋代 문인 范仲淹의 <江上漁者> 중 마지막 “出沒風波裏” 구를 농부와 어부의 땀으로 거두어진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지퍼백 광고로 활용한 예나 머그컵 사용, 물 절약, 분리수거의 생활화라는 장면과 함께 孟子가 인용한 바 있는 “不爲也, 非不能也.”²²⁾를 제시한 공익 광고 등 비록 과제 제출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다양하고도 흥미로운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²³⁾ 또한 결과물 가운데에는 魯迅의 <故鄉> 중 동일한 문구를 각각 여행사 광고와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공익 광고의 표제어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곧 고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독자의 능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중국 시가 문학 교육 과정에서는 스토리보드 제작을 겸하여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스토리보드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스토리보드댓(storyboardthat)”이 유용하다. 이는 이야기를 시각화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수업 활용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3]²⁴⁾은 해당 사이트의 스토리보드 제작의 첫 화면이다.

22) 《孟子·梁惠王上》：“故王之不王 不爲也 非不能也.”

23) 총 10건의 과제 중 60%에 달하는 학습자들이 공익광고로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고전이란 마땅히 교훈적이어야 한다는 일종의 고정관념에 기인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사의 표본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고의 논의와 맞지 않기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추후 연구 과정에서 보태어질 것임을 밝힌다.

24) <https://www.storyboardtha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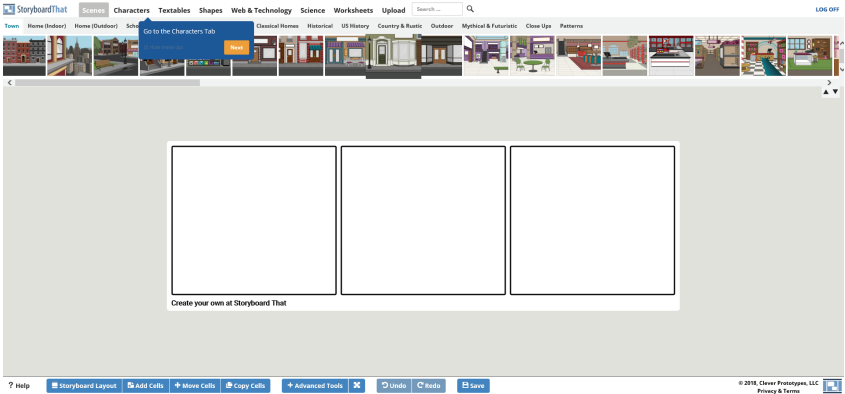


그림 3.

위의 스토리보드 플랫폼은 주제별 총 15개 항목의 배경 화면 설정이 가능하며, 인물과 도형, 말풍선 심지어 직접 업로드한 사진이나 화면을 활용하여 다양한 스토리보드 작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곧 고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과정을 시각화함으로써 효과적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광고 시놉시스 제작 등에 활용함으로써 메시지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전과 디지털 환경의 만남을 통해 고전에 대한 좀 더 친숙한 접근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2 마인드맵(Mindmap)을 통한 이미지의 의미망 구축

일찍이 명대 문인 謝榛은 《四溟詩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를 짓는 것은 감정과 경물에 근본을 두면서, 감정과 경물 중 어느 한쪽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감정과 경물이 서로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作詩本

乎情景，孤不自成，兩不相背.)²⁵⁾

‘情景交融’은 전통 중국 시가 문학을 지배하는 주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情’을 시인의 사상이나 감정, ‘景’은 사물을 뜻한다고 한다면, 전통 중국 시가 문학은 주관과 객관의 통일, 균형을 추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중국 전통 시가 문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또 한 가지의 키워드를 들자면 用事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창작에 있어서 典故나 사실을 인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겐 신화, 전설, 역사, 경서 심지어 민요나 속언까지 포함된다. 중국 전통 시가 문학은 격률, 문자수와 같은 엄격한 제한이 존재했기에 ‘以少總多’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바, 창작에 있어 용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던 셈이다. 이후 용사는 곧 문인의 학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작용한 바와 있으니, 시가 창작에서 용사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는 쉬이 짐작할 수 있다.

반면 한자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情景交融’과 용사의 문제는 시가 문학을 감상하고 활용하는데 매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아래에 인용된 두 작품은 동일한 ‘桃花’를 인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1) 春宮怨 봄 날 궁궐에서의 원망

왕창령王昌齡

昨夜風開露井桃. 어젯밤 바람에 우물가 복사꽃 피었는데
未央前殿月輪高. 미양궁의 앞 궁전에는 달 높구나.
平陽歌舞新承寵. 평양공주 집에서 춤과 노래로 새로이 총애를 받아
簾外春寒賜錦袍. 주렴 밖 봄날 추위에 비단 솜옷 하사하시었지.

(2) 題城南莊 도성 남쪽 집에 시를 남기다

최호崔護

去年今日此門中. 작년 오늘 이 문에서
人面桃花相映紅. 여인의 얼굴, 복사꽃이 서로를 붉게 비추었지.

25) 丁仲祐 編訂, 《續歷代詩話》(臺北: 藝文印書館, 1983), 1400쪽.

人面不知何處去,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데,
 桃花依舊笑春風. 복사꽃만 예전처럼 봄바람에 웃고 있구나.

(3) 桃花溪 복숭아꽃 편 시내

장옥張旭

隱隱飛橋隔野煙, 희미하게 나는 듯 높은 다리 들관 안개 너머에 있어
 石磯西畔問漁船. 바위 서쪽 물가에서 어부에게 묻네.
 桃花盡日隨流水, 복숭아 꽃 하루 종일 물을 따라 흐르니
 洞在清溪何處邊. 도원동은 맑은 시내의 어느 쪽에 있나요?

《詩經》 이래로 ‘桃花’는 문학 작품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어로 활용된 바 있는데,²⁶⁾ 위에 인용한 세 편의 시에서 사용된 복숭아꽃의 의미 상징 양상은 이를 보여준다. 먼저, 王昌齡의 <春宮怨>에서는 복숭아꽃이 실경의 하나로, 봄을 의미하는 상징한다. 이에 반해 (2)의 <題都城南庄>에서 ‘桃花’는 실경이기도 하면서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동시에 의미하고, (3)의 <桃花溪>에서는 이상향을 상징한다. 특히 (3)의 시제에서 등장하는 시내의 복숭아꽃은 도화원을 의미하는바, 이와 관련한 선이해가 없다면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²⁷⁾ 복숭아꽃뿐만 아니라 ‘菊花’의 경우에도

26) 《詩經》에는 5수의 작품에서 복숭아꽃이 등장하는데, 아래의 표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해당 표에서 제시한 복숭아꽃의 의미는 屈萬里(《詩經釋義》,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3)와 김학주(《詩經》, 서울: 명문당, 2002)의 해석을 참고한 것임을 밝힌다.

| 편명 | 해당 구 | 의미 | 비고 |
|------------|-------|-------------|---|
| <周南 桃夭> | 桃之夭夭 |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 |
| <召南 何彼穠矣> | 華如桃李 |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 |
| <衛風 木瓜> | 投我以木桃 | 열매 | 木瓜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는데, 김학주는 이를 ‘복숭아’로 번역하였다. |
| <魏風 園有桃> | 園有桃 | 열매 | |
| <大雅 蕩之什 抑> | 投我以桃 | 열매 | |

27)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桃花’ 혹은 ‘桃’가 시어로 사용된 작품은 총 8수가 존재하는데, 그 중 총 5수(王維 <酬郭給事>와 <洛陽女兒行>, 王昌齡의 <春宮怨>, 張九齡의 <感遇> 其二, 白居易의 <長恨歌>)에서는 복숭아꽃이 봄을 상징하며, 총 2수(王維의 <桃源行>과 <送崔九>)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시어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孟浩然의 <宴梅道士山房>에서는 ‘仙界’를 상징하는 시어로 사용되었다.

王維의 <九月九日憶山東兄弟>에서는 중앙절과 가을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하지만, 元稹의 <菊花> 중 “不是花中偏愛菊, 此花開盡更無花.(꽃 가운데 국화를 편애하는 것은 아닌데, 이 꽃 다 피면 다른 꽃은 없다네.)”에서는 세속에 휩쓸리지 않는 고고한 품격의 상징으로 의미 작용한다. 이 밖에도 杜鵑, 白鷗와 같은 동물 그리고 다양한 색상 등 시가 문학 속에서는 문인의 情 그리고 관련된 전고에 따라 하나의 소재가 다양한 의미망을 형성하는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그림-4]는 앞서 언급한 중국의 문학 및 문화 속 '桃花'의 의미 지망을 구축한 예이다.

마인드맵을 통한 고전 속 이미지의 의미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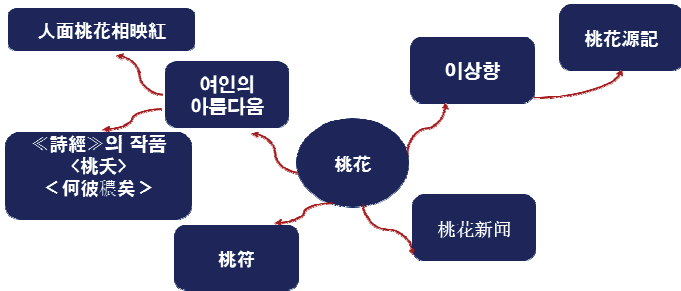


그림 4.

이러한 일련의 의미망 구조는 마인드맵(Mindmap)을 활용하여 정리해나갈 수 있다. 마인드맵이란 자신의 생각을 지도 그리듯이 이미지화하는 것으로, 창의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방법 중의 하나로 사용된다.²⁹⁾ 마인드맵 플

28) 최일희는 《중국시의 세계-거울속의 꽃 물속의 달》(서울: 신아사, 2012)에서 柳, 梅, 桃, 蓮, 鶯의 상징과 의미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김순진, 한용수는 <중국문화에 나타난 '黃'의 통시적 고찰>(《중국학논총》 제62집, 2018)을 통해 중국 문화에서 나타나는 황색의 상징과 그 변화에 대해 고찰한 바 있는데, 시가 문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색상이 나타내는 상징과 의미 맥락에 대한 마인드맵 작성도 주요한 교육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라 사료된다.

29) 서미경과 박선주는 <마인드맵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논술 프로그램 개발>(《정보교육학

플랫폼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는 여럿이 존재하는데, 아래 [그림-5]는 그 중 하나인 알마인드맵이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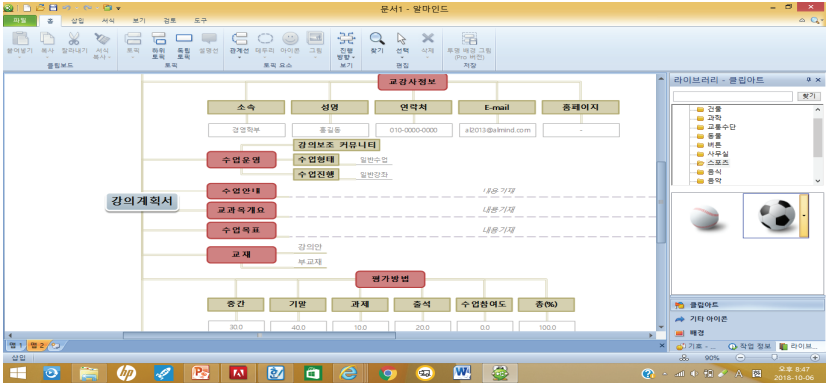


그림 5.

위와 같이 마인드맵의 기능을 활용하면, 중심 노드(node)를 고전 시가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의미의 노드로 연결하고, 다시 이에 대한 하위 노드들을 설정하여 의미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각각의 의미를 드러내는 해당 작품들의 음성 파일 혹은 관련 정보들을 연결하거나 노트 기능을 통해 작품의 원문을 수록하는 등의 작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팀별로 다른 중심 노드를 제공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과 수업 시간을 통해 동일한 중심

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2009)을 통해 마인드맵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 부여와 기억력 강화 및 정보 조직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실제 논술 교과목 운영에 있어 마인드맵의 운영은 학습자의 글의 구조 파악과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한 바 있다. 이 밖에 유봉현(<브레인스토밍 기법이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교육연구》 제13권 제1호, 2000) 역시 공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고력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 실험군이 이를 실시하지 않은 실험군에 비해 사고력 신장의 뚜렷한 결과를 얻은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30) 마인드맵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터넷 무료 사이트로는 Freemind를 비롯해 상당 수가 존재하며,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이지마인드, 심플마인드) 등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인 알마인드는 알툴즈(<https://www.altools.co.kr/Download/ALMind.aspx>)에서 다운로드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 Pro v1.81은 유료로 제공되고 있다.

노드에 해당하는 의미망을 함께 구성해나가는 방식 모두 채용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마인드맵 구성 과정은 앞서 언급한 바 있듯 학습한 내용들에 대한 기억력을 촉진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심 노드가 형성하는 다양한 의미망에 대한 문화적 원형에 다가감으로써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한계와 극복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타임라인 만들기³¹⁾,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 또는 구글 어스³²⁾를 활용한 문화 지도 그리기 등은 고전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로 유용할 것이다. 물론 일련의 프로젝트 중심의 활동은 앞서 언급한 학습자 중심의 교과운영 목표 달성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자칫하면 고전 교육의 기본이 되는 문언문으로 작성된 문장 해독 능력 신장에는 다소 소홀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주지하듯이 확장된 의미로서 고전 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해서는 중국 고전이 지니고 있는 언어학적 특징과 문법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시간 중 간단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수업의 주의력을 환기하고,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평가 항목은 고전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독해력 함양과 문화 이해 제고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독해력 함양과 관련하여서는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 및 주제에 대해 묻는 평가와 구절의 의미 파악을 위해 해석의 순서별로 글자를 나열하거나 끊어 읽기

31) 타임라인은 [timeline js\(https://timeline.knightlab.com/\)](https://timeline.knightlab.com/)에서 제작할 수 있는데,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타임라인은 멀티미디어 링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보다 다채로운 타임라인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도 간단한 타임라인을 제작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officetimeline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32) <https://www.google.co.kr/intl/ko/ea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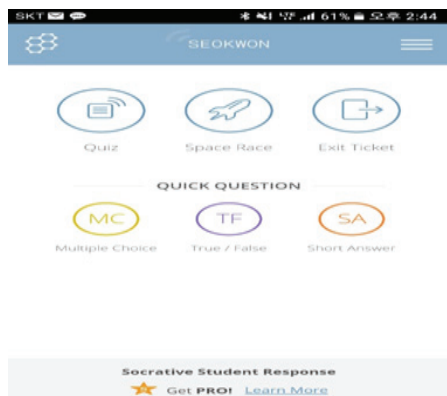


그림 6.

뿐만 아니라, student버전과 teacher버전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운영이 용이하다. 이는 교과목 담당 교수자가 class의 이름을 붙여 개설하고, 해당 학생들을 초대하면 모임이 구성된다. 그 안에서 교수자는 해당 구성원들에게 객관식, true and false, 간단한 주관식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학습 성취도 평가의 결과가 통계 자료로 제시되어 즉각적이면서도 입체적인 학업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프로젝트 중심의 교과목 운영은 조직원들 간의 목적 달성공유, 상호 수행 과정의 협업, 개인의 창의성 신장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중심 교과 운영에서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평가라고 하겠다. 교육평가(educational evaluation)란 교육목적의 달성 정도를 판단하고 일정한 기준을 통해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가늠하여 나타난 결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체계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³⁴⁾ 프로젝트 중심 수업의 평가는 현재 대학의 평가제도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 및 수행 결과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통해 평가되어야 하는 것

표시 등의 평가가 동반된다면, 과업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간과되기 쉬운 독해력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최근에는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어 있어 이러한 평가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크라티브(socrative)이다.³³⁾ 해당 교육평가용 플랫폼은 앱으로도 제공될

33) 이 밖에도 게임 기능을 활용한 평가 플랫폼 카훗(<https://create.kahoot.it>), 질문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플리커스(<https://www.plickers.com>) 등이 있다.

34) 김대현, 김석우,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서울: 학지사, 2011), 317쪽.

은 분명하나 상대평가가 대부분인 현 대학의 상황 속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셈이다.

4. 결론

일찍이 하루오 시라네가 편한 《창조된 고전》은 고전의 가치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시대와 독자에 의해 그 가치가 형성됨을 설파한 바 있다.³⁵⁾ 따라서 고전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시대와 문화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 속에 학습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함께 고전의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중국 고전 시가 문학이 지니고 있는 문화컨텍츠로서의 가능성 위에서 다양한 앱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고의 논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중국 고전 시가 문학 교육의 모델을 제시한 것에 그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모델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고전에 대한 인식 변화, 사고력 증진과 같은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보다 완전한 논의를 위해서는 실제 교과목 운영의 예와 이로 인한 학습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바, 이는 추후 연구과정에서 보태어질 것임을 밝힌다.

www.kci.go.kr

35) 하루오 시라네 외 위음, 왕숙영 옮김, 《창조된 고전》(서울: 소명출판, 2002).

< 參考文獻 >

- 김대현, 김석우,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학지사, 2011.
- 김학주, 《詩經》, 서울: 명문당, 2002.
- 박치완 외, 《지식의 역사와 그 지형도》(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6).
- 최일의, 《중국시의 세계-거울속의 꽃 물속의 달》, 서울: 신아사, 2012.
- 莫礪鋒, 최석원 역, 《당시,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6.
- 丁仲祐 編訂, 《續歷代詩話》, 臺北: 藝文印書館, 1983.
- 屈萬里, 《詩經釋義》,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3.
- 蕭滌非, 《杜甫全集校注》,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3.
- 김순진, 한용수, <중국문화에 나타난 '黃'의 통시적 고찰>, 《중국학논총》 제62집, 2018.
- 김의정, <시는 어떻게 광고가 되는가 - 중국 고전시의 문학 콘텐츠 활용방안>, 《중국어문학지》 제42집, 2013.
- 김창원 외,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국립국어원, 2008-1-57.
- 교육부, <2015년 초·중등학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년 9월.
- 교육부, <2015년 초·중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7), 2015년 9월.
- 교육부, <2015년 초·중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2015년 9월.
- 박영희, <온라인 상의 중국고전 교육>, 《중국문학》 제37집, 2005.
- 변종임 외,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사업: 한국 성인 文解교육의 발전과정과 성과>, 주관: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수행: 한국교육개발원, 2012(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205-01).
- 서경숙, <디지털 인문학 교수법의 이론 및 실제 - 영미문학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38집, 2015.
- 서미경, 박선주, <마인드맵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논술 프로그램 개발>, 《정보교육학 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2009.
- 유봉현,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교육연구》 제13권 제1호, 2000.
- 조희정, <고전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구도>, 《국어교육학연구》 제21집,

2004.

최진아, <고전은 고정된 것인가? - 디지털 시대의 중국 고전 교육을 위한 試論>, 《중국어문학지》 제47집.

허철, <自學用 한문교육SW 개선 방안 연구>, 《한자한문교육》 제43집, 2017.

<OECD Skills Outlook 2013-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글번역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1471271>

<https://www.altools.co.kr/Download/ALMind.aspx>

<https://timeline.knightlab.com/>

<https://www.storyboardthat.com>

<https://web.archive.org/web/20160730000952/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103rank.html>

< Abstract >

A Study on the Change of Chinese Literature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Classical Literacy: Possibility as Cultural Content of Poetry

Choi, Seokwon

The current classical education requires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utilize context beyond simple reading skills. Classical education is now facing a new situation, as it is aimed at developing learners-oriented,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in the curriculum. Therefore, I have named the process of re-solving from the present perspective based on my understanding of classics, presented storytelling of classic Chinese poetry using storyboards and building a meaning network using mind maps as a way to cultivate it. At the same time, I provided using various web-based software in classical class, this way will not only provide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overcome the hardships of the classics, but also give them an opportunity to show their role as cultural content of the

poem.

Key words: cultural content, storytelling, building a meaning network, classic literacy, classical education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 2019.01.31 | 2019.02.20 | 2019.02.27 | 2019.03.02 | 2019.03.31 |